

현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종교의 역할

: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전 명 수**

- I. 들어가기
- II. 폭력의 본질과 사회문제로서의 가정폭력
- III. 가정폭력의 특성과 해결자로서의 '생활종교'의 부상
- IV. 사회문제론의 종교사회학적 접근: 노인학대의 종교적 해결
- V. 결론

I. 들어가기

본 연구는 사회문제의 해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종교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문제는 시대에 따라, 또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나 큰 틀에서는 대체로 유사해 보인다. 최근에 다루어지는 사회문제들로는 대부분 정치, 경제, 가족 관련 문제들, 건강과 질병, 교육, 빈곤, 폭력(전쟁, 테러), 범죄, 젠더, 환경, 다문화사회 문제 등이 포함되고, 반면 그 배경 요인인 불평등에 초점을 두어

*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5S1A3A2046920).

**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부교수(종교사회학 전공)

다루기도 한다.¹⁾ 미국에서는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 있고,²⁾ 영국에서는 성별 선택 낙태가,³⁾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이나 이혼이⁴⁾ 사회문제 담론 안으로 들어왔다. 서구 연구자들 중에는 IT 컴퓨터, 커피까지도 사회문제로 보는 이들이 있다.⁵⁾

무엇보다 사회문제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 해결은 개별적이 아닌 총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이러한 정의는 국가나 시대에 따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사회문제란 고립된 케이스로서 각 개인을 다루기보다 총체적으로 그 문제에 적용되는 어떤 대책이나 대책들에 의해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흔한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 또는 합의되거나 조직된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문제”⁶⁾라고 하트(Hornell Hart)는 정의했다. 설리반(Thomas J. Sullivan) 역시 사회문제는 “한 영향력 있는 그룹이 그 가치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한 사회적 조건을 규정할 때, 그 조건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리고 그 조건이 집단행동에 의해 치료될 수 있을 때”⁷⁾에 존재한다는 기존 논의를 인용했다.

이에 근거하면 사회문제는 원인, 영향, 해결의 3단계가 모두 ‘개인’이 아닌 ‘사회’

- 1) Robert Heiner, *Social Problems: An Introduction to Critical Constructionism*, 4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4-99.
- 2) Juan Cole, “Islamophobia as a Social Problem: 2006 Presidential Address,” *Middle East Studies Association Bulletin* 41/1 (2007), 3-7.
- 3) Ellie Lee, “Constructing abortion as a social problem: ‘Sex selection’ and the British abortion debate,” *Feminism and Psychology* 27/1 (2017), 15-33.
- 4) 이철우, 『현대사회문제: 이론과 실제』(서울: 학지사, 2017), 102-127, 187-217.
- 5) Paul Attewell, Juan Battle, Belkis Suazo-Garcia, “Computers and Young Children: Social Benefit or Social Problem?,” *Social Forces* 82/1 (2003), 277-296, Ronald J. Troyer and Gerald E. Markle, “Coffee Drinking: An Emerging Social Problem?,” *Social Problems* 31/4 (1984), 403-416.
- 6) Hornell Hart, “What is a Social Problem?,”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29/3 (1923), 349.
- 7) Thomas J. Sullivan, *Introduction to Social Problems*, 10th ed. (Boston: Pearson, 2016), 3.

가 중심인 문제들이다. 먼저 사회문제란 사회의 지배적 가치나 규범에서 벗어나는 일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간주하면서 그 개선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사회문제는 사회구성원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마지막으로 문제의 해결 또한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 또는 다수의 집합적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말하자면 어느 문제도 다른 문제들과 고립되어 그 자체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⁸⁾ 결론적으로 사회문제의 핵심은 사회적 조건들이 한 집단의 가치를 위협하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사회문제에서 사회에 대한 이러한 지나친 강조나 개인과 사회에 대한 엄격한 구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회문제에서 사회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문제의 범위나 영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가정폭력은 오히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이고, 더 나아가 이것은 범죄로 간주되는 중요한 사회문제인 것이다. 본고가 사회문제의 해결에서 주목하는 종교 역시 최근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 과정을 겪고 있어 '사회'문제의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있을 수 있다. 더욱 종교는 세속 권력에 기대면서 이를 남용함으로써 그 자체가 사회문제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종교는 사회를 떠나 존재할 수 없고, 지금까지 대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면서 공적 역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바가 컸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본고가 사회문제의 논의에서 종교사회학적 관점을 제기하는 것은 바로 사회문제를 사회학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면서 여기에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사회문제의 해결에서 종교의 긍정적 기여를 인정하더라도 종교가 과도한 사사화와 함께 지나치게 고도로 추상화되고 이념화된 교리의 전달에 편중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제의 해결에서 종교는 생활종교(lived religion)여야 할 것으로, 생활종교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충분하지 않지만, 간단히 말해서 생활종교는 일상생활에 함축된 종교성을 찾거나, 중

8) 정현주 외, 『사회문제의 이해』(제2판)(서울: 대왕사, 2014), 15-16; 이철우, 『현대사회문제: 이론과 실제』, 29.

교적 교리를 일상생활에 구현하는 '일상의 종교'(everyday religion)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⁹⁾ 무엇보다 본고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정폭력이어서 이의 해결을 위한 종교는 특히 생활에 밀착된 종교여야 그 역할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생활종교의 구체적 실천 양상을 찾아보는 시도적 고찰이 될 것이다.

II. 폭력의 본질과 사회문제로서의 가정폭력

사회학사전과 사회사업사전에 의하면 폭력은 "사람에게 육체적인 해를 가하거나 그의 재산을 물리적인 힘으로 손상시키는 행위이다. 사회적 행위에서 물리적 힘을 관리하는 능력은 중요한 요인이다."¹⁰⁾ "대개 가족성원이나 다른 동거인이 가정의 어린이, 어른, 배우자, 기타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 이 용어는 또한 다른 식구의 고의적 행위의 결과로 재산, 건강, 생활이 위협을 받거나 해를 입는 사회문제를 가리킨다."¹¹⁾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중 첫 번째 사회학사전은 폭력이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재산의 손상을 포함한다는 것이며 폭력에 사용되는 물리적 힘을 사회적 입장에서 접근한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폭력의 사회성을 함축한 것이다. 반면 두 번째 사회사업사전은 가해자와 취약계층인 피해자들의 다양한 유형을 부각시키면서 물리적인 힘 대신 학대, 위협, 위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동시에 폭력의 위해를 신체보다는 재산, 건강, 생활로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범죄학 및 사회학이 전문분야인 엘리자베스 스타코(Elizabeth A. Stanko) 교수는 폭력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 또는 그

9) Robert Orsi, "Everyday Miracles: The Study of Lived Religion," David D. Hall (ed.), *Lived Religion in America: Toward a History of Practic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6-7.

10) 고영복 편, 『사회학사전』(서울: 사회문화연구소, 2000), 413.

11) 로버트 L. 바커, 『사회사업사전』, 중앙사회복지연구회 옮김 (서울: 이론과 실천, 1996), 16.

들 스스로에게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해를 야기시킨다고 위협하거나 야기시키는 한 개인에 의한 어떤 형태의 행동”으로 정의한다.¹²⁾ 이 정의는 폭력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것으로, 그는 폭력이 단지 물리적 힘을 통한 신체적 공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성적 심리적 폭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시켰다.

스탄코의 이러한 정의에 대해 래리 레이(Larry Ray)는 폭력이 개인적일 필요가 없고 매우 자주 집합적이며, 의도적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심리적 해는 물리적 그리고 성적인 해와는 다르며, 모든 ‘해’가 인습적으로 ‘폭력적’으로 간주되는 행위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소홀이나 태만으로부터 일어날 수도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적어도 ‘위협’이 그 자체로 폭력인지 어떤지를 질문할 가치가 있다는 등등의 문제점을 거론한다.¹³⁾ 실제로 폭력은 개인과 집단, 물리력의 사용과 성적·심리적 피해 간 차이가 있고, 폭력과 위협 사이에도 미묘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물리적 폭력과 성적, 심리적 폭력 간의 차이는 폭력 사용의 결과가 가시적인지 아닌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 피해자의 내면적 상흔이 더 심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매일의 삶에서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흔한 것이어서 개별적으로 피해자가 받은 어느 정도의 심리적 정신적 상흔이나 위협이 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보면 비토리오 부파치(Vittorio Bufacchi)가 폭력을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한 것이 더 알맞을 수도 있다. 그는 폭력을 “힘으로서의 폭력”(violence as force)과 “규칙 위반으로서의 폭력”(violence as violation)의 두 가지로 나누면서 전자는 보통 신체적 해를 가하는 것을 포함하고, 후자는 어떤 제한 또는 규범을 넘어서 위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부파치는 전자의 관점에서 본 폭력을 미니멀리스트(minimalist) 개념으로, 후자의 관점에서 본 폭력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나누고 있다.¹⁴⁾ 이러한 미니멀리스트 개념과 포괄적인 개념화는 진

12) E. A. Stanko, “violence,” E. McLaughlin and J. Muncie (eds.), *The Sage Dictionary of Crimin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2001), 316.

13) Larry Ray, *Violence and Society* (London: Sage Publications, 2011), 7-8.

14) Vittorio Bufacchi, “Two Concepts of Violence,” *Political Studies Review*

정한 의미의 폭력은 미니멀리스트 개념이라는 암시가 있으나 피해자가 반응하는 피해의 강도는 상반될 수도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레이가 제기한 대로 위협과 폭력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위협은 물론이지만 신체적인 가해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이나 공포가 이미 폭력의 범위 안에 포함되거나, 심지어 그 범위를 넘는 경우가 많다.

폭력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호한 경계들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가정 폭력이다. 개인이 받는 폭력이면서도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고, 신체적 폭력과 성적 심리적 폭력, 또는 폭력과 위협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 법무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정폭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가정폭력을 어떤 관계에서든 한 쪽 파트너가 다른 쪽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권력과 통제를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학대행위의 한 패턴으로서 정의한다. 가정폭력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또는 심리적 행위나 행위들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누군가를 두렵게 하고, 조종하며, 수치스럽게 하고, 고립시키며, 놀라게 하고, 무섭게 하며, 강요하고, 협박하며, 비난하고, 아프게 하며, 부상을 입히고, 또는 해치는 어떤 행동들을 포함한다.¹⁵⁾

이 정의에는 신체적 학대로 치기, 때리기, 떠밀기(shoving), 단단히 움켜잡기, 꼬집기, 깨물기, 머리 잡아당기기 등이 열거되었다. 성적 학대에는 동의 없이 어떤 성적 접촉이나 행동을 강요하거나 강요를 시도하는 것으로, 신체 폭력이 발생한 후 섹스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사람을 위협하면서 배우자 강간, 신체의 성적 부분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다. 미국 법무부가 가정폭력을 '학대 행위의 한 패턴'으로 정의하여 폭력을 학대의 일종으로 보는 것도 관심

3/2 (2005), 193-204.

15)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justice.gov/ovw/domestic-violence> (2018. 3. 15 접속). 이 글의 출처는 국가 가정폭력 직통전화(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범죄피해자 국립센터(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WomensLaw.org이다.

이 간다. 일반적으로 노인학대, 아동학대를 가정폭력으로 포괄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나 학대는 피해자가, 폭력은 가해자가 부각되는 편이다. 단지 이 정의에서는 부부, 동거자, 연인 등 ‘친밀관계’를 가진 두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가정 내 아동, 노인폭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블랙웰 사회사업사전』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가정 내 ‘친밀관계’의 맥락에서 한 파트너(남편, 동거인, 전 남편 또는 전 파트너)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된다. 특히 가정폭력이란 술어는 여성폭력, 여성학대, 아내 구타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는데, 모든 술어들은 일반적으로 그녀의 남성 파트너나 남편에 의한 여성의 신체적 그리고/또는 성적 학대를 가리키며, 심리적 학대와 다른 형태의 통제하기, 공격적 그리고 협박하는 행동으로 확대된다. 동시에 여성에 대한 파트너의 신체적 성적 학대가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중 하나만이 행해지기도 한다는 점도 분명히 보여준다.¹⁶⁾

비록 위 기사문에서 신체적·성적·정서적·심리적 각 폭력의 실제 유형들을 자세히 정리했으나 각 폭력의 범위가 모호한 것이 사실로, 예컨대 꼬집기, 때리기, 욕설 등 어느 정도 선까지가 폭력에 포함될 것인지는 여전히 문제가 될 것이다. 미국법조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역시 이와 유사하게 가정폭력을 “한 친밀한 파트너가 다른 친밀한 파트너에게 권력과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신체적 폭력, 강압, 위협, 협박, 고립, 그리고/또는 정서적, 성적, 그리고 경제적 학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그것은 범죄이고 그리고 심각한 가정사”¹⁷⁾라고 정의했다. 여기서도 특별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intimate) 파트너임이 강조되었다. 주목되는 점은 이 정의에서 가정폭력이 심각한 가정사이면서 범죄라고 한 것으로, 물리적 힘과 경제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에 의한 갈등과 폭력은 이제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부간, 아동, 노인이건 친밀한 관계 사이에서의 폭력이 결국 가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

16) Martin Davies (ed.), *The 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al Work* (Oxford: Blackwell, 2000), 99-100.

17) American Bar Association, “Domestic Violence Changes Everything,” *Family Advocate* 28/1 (2005), 16-17.

고 있으나, 가정폭력은 사회폭력의 축소판이어서 사회적 접근이 필요한 중요한 사회문제라는 것이다. 가족의 일차적인 기능은 사회적 재생산의 기능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양육과 보호, 정서적 안정 역시 필수적인 기능인 것이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조사(2016)에 의하면 응답자의 지난 1년간 자녀학대율은 27.6%였으며, 여성 응답자의 자녀학대율은 32.1%, 남성 응답자의 자녀학대율은 22.4%였다.¹⁸⁾ 여성 응답자 셋 중 한 명은 자녀를 학대했다는 것으로, 아동학대를 부부 문제 이상으로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보건복지부는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 최근 3년간(2014.7-2017.7)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뿐만 아니라 그것이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욕설이나 협박, 위협 등의 정서학대와 방임도 명백한 학대라는 사회적 인식이 증가되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제5조 제2항)을 포함한다(2015년 3월 신설). 무엇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키워드가 ‘범죄’인데, 버즈량이 2015년 후 급상승하여 2016년부터 상위권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것은 아동학대가 가족 간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범죄)’로 인식되는 경향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조사자들의 결론이다.¹⁹⁾ 비교적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노인학대’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는 접수 건수가 2016년 4,280건으로, 2010년 3,068건 대비 1,000건 이상 증가했다.²⁰⁾ 2014년(1-12월) 조사에서는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노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²¹⁾

18) 여성가족부,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2016. 12, 연구보고 2016-41), v.

19) 보통 버즈량은 온라인의 실시간 검색어로 유통되는 자료의 총량이란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조사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검색 키워드 표본을 바탕으로 수집된 웹문서 총량으로 아동학대 관련 유의미한 단어 150개 중 50위권 내 단어를 상위권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 11. 23. “빅데이터와 통계로 보는 우리사회의 아동학대 인식.” 1-2.

20)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17. 12. 29. “2017 통계로 보는 보건복지.” 1.

2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6. 15.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결과 발표.” 2-3.

이것은 노인학대가 가족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문제는 여전히 가정폭력이 가정이란 울타리 속에 은폐되어 있는 것이 많다는 점이다. 부부폭력이나 노인폭력에서 피해 당사자가 이를 외부에 노출하는 것을 꺼리고, 아이들의 경우 스스로 신고할 능력이 없을 뿐더러 정서학대와 방임 등 주변이 감지하기 어려운 학대가 많으며, 신체 학대 역시 훈육의 일환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문제로서 노인 학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했다는 것이다.²²⁾ 그러나 가정폭력은 학대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친구들, 동업자들, 다른 목격자들과 크게는 공동체에 대해 실제적 영향을 미친다. 가정폭력을 목격하며 성장하는 아이들은 이 범죄에 의해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이들로, 집에서 빈번한 폭력예의 노출은 아이들에게 수많은 사회적 그리고 신체적 문제를 갖도록 하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에게 폭력이 정상적인 삶의 길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이다.²³⁾ 더 나아가 가정폭력의 문제는 10대 임신, 결혼 형태, 동거와 이혼의 다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도 보인다.²⁴⁾ 이것은 피해여성, 자녀들 그리고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더러 가정폭력을 통한 가족의 해체는 사회의 불안정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피해자가 노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며, 의료적 치료, 그리고 경찰이나 법원, 복지서비스 등의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제기된 바 있다.²⁵⁾

이러한 주장들은 특히 영향의 측면에서 가정폭력이 한 ‘가정’이 아닌 ‘사회’의 문제임을 확인해 준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지대책들을

22) Felix O. Chima, "Familial, Institutional, and Societal Sources of Elder Abuse: Perspective on Empowerment," *International Review of Modern Sociology* 28/1 (1998), 103.

23)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justice.gov/ovw/domestic-violence> (2018. 3. 15 접속).

24) Kristin L. Anderson, "Conflict, Power, and Violence i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3 (2010), 726-727.

25) 김태수, 「한국의 가족문화: 가부장적 구조에서 가정폭력과 목회상담자의 역할」, 『복음과 상담』5 (2005), 166.

세우고 있으나 그러한 제도나 대책이 이루기 어려운 부분을 종교가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후술하겠지만 사회학은 사회문제의 분석과 해결 사이에 갭이 존재하고 있어,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종교사회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III. 가정폭력의 특성과 해결자로서의 ‘생활종교’의 부상

부부, 아이, 노인을 모두 포함한 가정폭력의 특성은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이다. 위에서 거론한 대로 미국 법무부, 법조협회에서 정의한 가정폭력은 ‘친밀한 관계’를 전제하는데, 보통 친밀관계란 성적 관계에 대한 완곡어법으로 사용된다. 폭력이 그러한 친밀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모순이나 역설일 수 있다. 영국의 사회학자 제프 허언(Jeff Hearn)에 의하면 친밀감은 대인관계에서 신체적, 감정적 친밀감을 말하는 것으로, 친구관계에서의 우정이나 이성 간의 사랑, 로맨스 등도 친밀함이란 단어에 포괄된다고 보았다. 그는 친밀함 속의 폭력은 상대 파트너에 관한 지식,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고, 이들 파트너들이 성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친밀한 관계 사이의 폭력을 ‘기본적인 역설’(fundamental paradox)로 규정했다.²⁶⁾ 바로 가정폭력은, 비록 불평등한 친밀감이기는 하지만, 과거, 현재 때로는 미래의 친밀함과 관련된 폭력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속속들이 아는 친밀한 관계가 오히려 폭력을 일으키는 동인이 된다는 점에서 보면 확실히 ‘역설’이기는 하지만, 친밀감의 속성이 쉽게 폭력으로 바뀔 수 있는 그렇게 가벼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지야드 마라(Ziyad Marar)는 친밀감이 상호적이고, 공모관계이며, 감정적이고, 친절하다는 네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친밀감은 이 네 가지 렌즈를 통해 고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들 렌즈 각각은 친밀감을 가능하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26) Jeff Hearn, "The sociological significance of domestic violence: Tensions, paradoxes and implications," *Current Sociology* 61/2 (2012), 155.

주장이다. 상호적 친밀감이란 서로 이해하는 상호 인식을 제공하고, 공모는 외부의 사람들에게 숨겨야 하는 비밀의 공유로 상호 신뢰가 요구된다. 다음 친밀감은 감정적으로 강화된다는 것으로, 고조된 감정은 의미와 함께 오며, 우리의 통제 밖에 있어서 단순한 전략적인 이유로 쉽게 배치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친밀함은 친절로,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우리를 알 수도 있는 다른 사람들의 친절은 비록 그들이 보는 것이 모두 진실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협하기는 하지만 좀 더 큰 친밀함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²⁷⁾

이와 같이 인간관계에서 친밀감이 함축하고 있는 상호 이해와 신뢰, 그리고 교류라는 다층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성 간의 관계가 계층, 다시 말해서 불평등한 친밀감(unequal intimacy)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적이며, 감정적이고, 공모관계이며, 그리고 친절이란 특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평등한 친밀감이라는 관계의 폭력성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친밀한 관계를 빙자한 폭력으로 사회 각처, 특히 사랑, 결혼, 가족 등과 같은 영역에서 위기성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이다.²⁸⁾ 사회학적으로는 가족이 개인화되고, 불평등한 성 규범, 부부의 삶에서 파트너십의 해체,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자녀 가치 등 가정의 구조적 변화가 드러난다는 관점인데,²⁹⁾ 이러한 변화 속에서 친밀감의 네 가지 렌즈인 상호성, 비밀의 공유, 감정, 친절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가 문제로, 결국 가정폭력은 이들의 붕괴가 가져오는 위기적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다.

가정폭력의 두 번째 특성은 무엇보다 각 폭력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폭력의 경우 부모 간의 폭력과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미국의 사회학자 크리스틴 앤더슨(Kristin L. Anderson)은 2000년대에 들어

27) Ziyad Marar, *Intimacy: Understanding the subtle power of human connection* [eBook] (New York: Routledge, 2014), 43-48.

28) 정학섭, 「친밀성의 위기와 순수지속의 사상적 성찰」, 『사회사상과 문화』18/3 (2015), 1.

29) 김혜경 외,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서울: 다산출판사, 2014), 136-242.

와 가정 내 갈등, 권력, 폭력에 대한 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아동, 파트너, 노인, 부모, 형제 학대가 상호 연결되었을 뿐 아니라 신체적 성적 감정적 학대 역시 서로 연결되었다는 사실들을 밝힌 바 있다.³⁰⁾ 많은 수의 가정폭력들은 폭력이 공동으로 발생하는 케이스들로, 만약 한 아동이 학대받고 있다면 가정폭력이 부모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욱 부모의 폭력적인 상호작용을 본 아동은 자라서 역시 폭력적인 부부 관계를 갖는다는 것으로, 노인학에서도 학대받은 자녀들이 성장해서 노부모를 학대하는 학대의 세대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³¹⁾ 아이들은 성인부부 간 폭력이 발생하는 동안에 상처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버지뿐만 아니라 학대받는 어머니에 의해 학대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동시 발생은 동일 가족에서 아동학대와 아내구타 간의 중복이 30-60%, 또는 40%에 달한다는 조사 보고들이 나와 있다. 문제는 아이들에 대한 학대가 격렬할수록 주로 부인에 대한 학대 역시 격렬해지고, 부인이 더 심하게 매를 맞을수록 그의 아동은 더 격렬하게 학대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매맞은 여성은 학대받지 않은 여성에 비해 그들의 아이들을 적어도 두 배 더 학대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³²⁾

이러한 가정폭력은 부부 간, 부모와 아동 또는 자녀와 노부모 간 어느 것이든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고, 더욱 한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의 발생이 가해자에게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의 궁극적 해결은 가해자의 변화에 있으므로, 그 해결은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가족 공동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부부폭력]의 공존에 대한 자세한 경험적 자료를 제시한 아펠과 홀덴(Anne E. Appel and George W. Holden)이 그 논문의 결론에서 배우자 학대와 아동

30) Kristin L. Anderson, "Conflict, Power, and Violence in Families," 727-728.

31) 이현주, 「학대의 세대전이를 통해 본 노인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상담자료 분석 활용」, 『사회과학연구』29/3 (2013), 411-414.

32) Jonathan K. Appel and Dohee Kim-Appel, "Child Maltreatment and Domestic Violence: Human Services Issues," *Journal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29/2 (2006), 229-230.

학대 사이에 상당한 중복이 있으므로 가정폭력 관련 기관과 아동복지체계가 가정에 대한 좀 더 통합적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에서도 그 점이 드러난다.³³⁾ 가정폭력 연구는 아동학대, 친밀한 파트너 폭력, 부모학대, 형제 간 폭력과 노인학대 등 유형별로 분화된 고찰이 필요하지만 잘못하면 그것이 가정폭력의 더 큰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방해할 수도 있어서 가정폭력의 통합적인 연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³⁴⁾

본고에서 가족문제의 해결에 종교적 접근을 거론한 것은 바로 가족학대가 갖고 있는 위의 특성들 때문이지만, 먼저 종교가 그 자체로 이미 사회문제의 하나로 간주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가 거대한 부와 권력을 축적했으면서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소극적인 점이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³⁵⁾ 러시아의 경우 종교를 사회주의자 사회에 대한 진전을 지체시키는 반동적 영향으로 인식했던 지도자들과 달리 소련의 대다수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적 관습에 매달렸고, 상당수는 열성적인 신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종교는 소련 지도자들이 사회주의자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시기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였다.³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해결자로서 종교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위에서 기술한 대로 가정폭력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고 모든 가정폭력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종교의 힘과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해결책은 주로 피해자 개인의 치유가 중심이 되었으나 이것은 가족 전체가 대상이 되어 치유에 동참해야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일단 가족이 공유하는 상호성,

33) Anne E. Appel and George W. Holden, "The Co-Occurrence of Spouse and Physical Child Abuse: A Review and Appraisa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4 (1998), 596.

34) Kristin L. Anderson, "Conflict, Power, and Violence in Families," 726.

35) 이철우, 『현대사회문제: 이론과 실제』, 360-363.

36) John S. Curtiss, "Religion as a Soviet Social Problem," *Social Problems* 7/4 (1960), 328-339.

비밀, 감정, 친절이라는 친밀감에 숨겨진 ‘불평등한’ 계층 의식의 축소가 가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학대문제를 해결하는 목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가해자와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으로,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간, 부모와 자녀 간 공고히 뿌리박힌 불평등한 계층의식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정폭력은 어느 한 가해자, 피해자의 문제가 아닌 가족 공동체의 문제여서, 가해자가 얼마나 가정 회복의 의지가 있는지, 어느 정도 종교에 우호적일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단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종교적 접근이 가장 용이할 것이다. 여기서 종교 특히 생활종교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앞에서 기술한 대로 생활종교에 관해서는 아직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요구되기는 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기서 사용하는 생활종교는 제도종교와 상반된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다. 생활종교는 교리보다는 종교적인 개인들의 매일의 삶에서의 경험들에 초점을 두지만, 반면 그들이 참여하기도 하는 종교의 제도적 측면들 역시 고려한다. 단지 단순하게 제도종교의 규정을 그대로 베끼지 않는 대신 그들 자신의 신념과 실천을 형성하고, 협의하며, 변화시키는 데에 적극적이고 성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³⁷⁾

이것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고도의 심화된 교리적 접근, 영혼 구제를 통한 내세에 초점을 둔 종교로서는 그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그간 기독교는 부부폭력의 희생자인 피해여성과의 상담에서 고난, 고통, 용서와 같은 십자가 교리가 중심 테마였으나, 이것이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긍정적인 역할과, 그 상황에 무력하게 더 오래 머물게 만드는 부정적인 역할이 모두 있기 때문에 고난과 용서에 관한 새로운 목회신학적 해석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³⁸⁾ 이와 달리 생활종교는 이미 형성된 교리나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의 삶을 통해 그 이론과 실천의 틀을 구축

37) Line Nyhagen, "The lived religion approach in the sociology of religion and its implications for secular feminist analyses of religion," *Social Compass* 64/4 (2017), 495-511.

38) 김희선, 「힘의 악용으로서의 가정폭력과 종교: 기독교신앙의 역할」, 『목회와 상담』 27 (2016), 82-92.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가 바로 생활종교의 핵심이다. 본래 생활종교는 그간 신학사나 교회와 국가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에 비해 평신도 또는 비전문가들의 매일의 사고와 행동에 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어서,³⁹⁾ 생활종교는 종교적이거나 비종교적인 일반 사람들의 일상, 경험, 관행이나 실천에서 종교적 의미를 찾거나 종교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⁴⁰⁾ 생활종교는 관행 또는 실천[practice]으로 구성된다는 의미이다.⁴¹⁾

『생활종교』(*Lived Religion*, 2008)의 저자 맥과이어(Meredith B. McGuire)는 생활종교의 구체적인 예로 베트남의 승려 틱낫한(Thich Nhat Hanh)이 쓴 『평화로움』(*Being Peace*)이라는 책을 제시한다.⁴²⁾ 틱낫한은 이 책의 끝에서 세 가지를 권하고 있다. 하나는 집 안에 호흡을 위한 방, 명상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몇 분간 앉아서 호흡을 세는 일이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 천천히 걷는 명상을 하는 일이다. 단 10분만으로도 충분한데, 틱낫한은 이 세 가지만으로도 우리의 문명을 바꿀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고 공언한다. 그가 거론한 베트남 불교의 특성 중에는 무엇보다 불교적인 것을 포함해 어떤 교리, 어떤 이론, 또는 어떤 이념에도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가 삶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지관적인 지식 속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분노나 미움을 지속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원인이 된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비에 대해 명상할 것을 권하고, 몸과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깨어 있음 실천하기 위해, 호흡 명상을 하라고도 했다.⁴³⁾

39) David D. Hall, "Introduction," David D. Hall (ed.), *Lived Religion in America: Toward a History of Practic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vii.

40) 전명수, 「생활종교와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종교시설 내 납골당 설치를 중심으로」, 『종교연구』77/3 (2017), 39-66.

41) Helena Kupari, *Lifelong Religion as Habitus: Religious Practice among Displaced Karelian Orthodox Women in Finland* (Boston: Brill, 2016), 60.

42) Meredith B. McGuire, *Lived Religion: Faith and Practice in Everyday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13.

틱낫한의 이 내용은 확실히 일상에서 수행할 수 있는 생활종교의 특성을 보여주지만 기독교의 구약 율법서의 내용 역시 구체적인 삶의 가이드라인인 생활종교적인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예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키 말라[신명기 14:21]라는 구절은 제사나 잔치처럼 일상적인 일을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성찰하게 하는 종교적 가르침이다. 웃는 연습을 생활화할 것을 권고했던故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도 생활종교의 중요한 지침이다. 그는 웃는 얼굴의 추기경으로 이름났는데 웃음에는 마음의 긴장을 풀고 모든 것에 너그러워지는 ‘영적’ 성숙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다.⁴⁴⁾ 이로 보면 명상[묵상, 피정, 참선, 큐티], 웃음, 그리고 음식 만들기 어느 것이든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 수행은 가족 공동체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막론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여서, 아마도 이러한 일상에서 가족 모두, 특히 가해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는 의지와 노력이 가정 평화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IV. 사회문제론의 종교사회학적 접근 : 노인학대의 종교적 해결

일반사회학은 사회적 기원과 구조, 그리고 사회적 과정의 탐구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사회문제론의 연구와는 구분되고, 사회사업은 집단문제론의 해결보다는 개별 케이스의 취급에 관심을 갖고 있어 사회문제 연구와 차이가 있다.⁴⁵⁾ 그러나 최근 사회문제론이 사회학의 하위분야로 간주된다는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로버트 하이너(Robert Heiner)는 사회학이 매우 광범위한 분야여서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하나 혹은 둘의 하위분야들에 집중하지만 요점은 “사회문제론은 사회학의 한 하위분

43) 틱낫한, 『틱낫한의 평화로움』, 류시화 옮김 (서울: 열림원, 2002), 164-175, 213.

44) 장혜민, 『김수환 추기경 평전[eBook]』(서울: 산호와진주, 2010), 195.

45) Hornell Hart, "What is a Social Problem?," 345.

야'라고 했다. 하이너는 사회문제를 단순히 뉴스기자나 사회평론가들이 거론하는 종류의 시사 강좌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고찰되고 분석되어야 하는 사회학 분야임을 강조했다.⁴⁶⁾

그렇다면 사회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므로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사회학은 단지 현재 사건들의 연구가 아닌, 사회과학적 접근이 요구되는 분야이고, 사회과학의 중요한 목표는 연구 주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문제를 본질적으로 나쁜 것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사회학자들은 이를 가치 판단으로 비판하면서 그러한 가정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무엇보다 사회과학자는 사회문제와 사회구조를 서로 밀접한 관계로 보면서, 결과적으로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한 현상에 내재하는 나쁨이 아니라는 것으로 사회문제로서의 가정폭력 역시 사회구조적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에서 하이너는 사회문제 연구에서 갈등 이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종합인 비판적 구성주의(Critical Constructionism)의 관점을 사용한다.⁴⁷⁾ 비판적 구성주의는 형이상학적인 논쟁을 문제 해결의 최우선 관심사로 보지 않거니와, 이것은 그 논쟁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을 개선하려는 문제의식'이 더 우선하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줄 때만 형이상학적 문제들이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⁴⁸⁾

이러한 관점은 사회문제를 사회학의 하위분야로 간주할 때에 의미가 있으나 사회학의 경우 사회문제 분석과 그 해결 사이에 갭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사회과학자들은 그들의 발견물을 제시하고 해석하는 단계를 넘어갈 수도 없고 가고 싶어하지도 않으며, 반면 결정 입안자들과 프로그램 기획자들은 자주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결과물의 함축을 보지 못한다. 해결 찾기의 과정은 연구 지식과 프로그

46) Robert Heiner, *Social Problems: An Introduction to Critical Constructionism*, 1.

47) Robert Heiner, *Social Problems: An Introduction to Critical Constructionism*, 2.

48) 임병갑, 「〈과학문화 발전 프로그램〉을 위한 철학적 기초로서의 비판적 구성주의」, 『과학기술학연구』1/2 (2001), 443-444.

램 실행의 실제적인 고려 모두의 관점에서 대안적 해결을 제안하고 고찰하는 공동의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⁴⁹⁾ 본고가 가정폭력에서 종교적 접근을 목표로 한 것은 그 겹을 매꾸는 한 가지 방식이 종교사회학으로 간주되기 때문으로, 사회학이 사회문제의 분석에 초점을 둔다면 종교는 그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종교사회학은 종교를 사회적 맥락으로, 또는 사회를 종교적 맥락으로 고찰하는 분야이고, 생활종교는 일상에서 종교를 찾거나 종교적 가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종교사회학의 핵심이 되면서 사회문제의 해결에 그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노인학대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자녀학대, 아내 구타, 부모학대 등 가정폭력으로 가족 간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 등장하는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오랜 시간 진행되어온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서 현재 산업사회로부터 탈산업사회로 이행중이기에 가족 또한 적응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가족사회학 영역에서 가족의 어두운 측면, 곧 자녀학대, 배우자 구타, 근친상간, 노인학대, 가족동반 자살 등이 새롭게 부상하는 쟁점들이다.⁵⁰⁾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제1조의2 제4항)으로 부부, 아동폭력보다 전통윤리에 더 배치되는 심각한 사건이면서도 가족 내에서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노인학대 역시 다른 가정폭력과 함께 이루어지는 중복학대가 많다.⁵¹⁾

2016년 여성가족부가 만 65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원(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 등)으로부터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 및 방임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학대 피해율은 유형별 학대행위 중 하나라도 경험

49) Thomas R. Ford and Thomas J. Hoban, “Bridging The Gap Between Social Problem Analysis and Social Problem Solution,”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4 (1987), 69.

50) 함인희, 「가족사회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15/1 (2014), 112.

51) 김원천·박현식, 「노인학대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중복학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38 (2011), 141-160.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였으며, 학대유형별 피해율은 신체적 학대 0.4%, 정서적 학대 6.5%, 경제적 학대 1.5%, 방임 1.4%였다. 주 가해자인 가족원은 아들·딸인 경우가 69.5%로 가장 많았지만 자녀의 배우자들인 사위·며느리도 20.2%나 되었고, 더욱 손자·손녀(7.0%) 역시 가해자 군에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와 동거하는 비율은 28.6%로, 모시고 살지도 않으면서 노부모, 시부모, 장모와 조부를 학대하는 이들이 70%를 넘는다는 것이어서 이 점은 가정 폭력의 배경에 가족구조의 변화가 있음을 알려준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가족원의 학대 이유로는 ‘해당 가족원의 나에 대한 부양부담’이 36.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해당 가족원의 스트레스’(29.4%), ‘이유를 모름’(15.6%), ‘해당 가족원이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서’(10.4%) 순이어서 노부모들이 이미 가부장으로서가 아닌 피보호자로서의 자신들의 위상을 절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노인들은 이전 가부장으로서의 자존심은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학대 발생 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응답자는 없었다는 것으로, 그 이유가 ‘가족이라서’(61.1%),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23.3%),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15.6%) 순으로 나온 데에서도 나타난다.⁵²⁾

물론 이러한 현상이 새롭게 ‘발견’된 것도,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는 “이들 현상을 문제로 보는 공공의 인식이 강화되면서 가족만의 부끄러운 비밀을 공공정책 속에서 다루게 된 것이 변화의 요체”로 본다.⁵³⁾ 따라서 다양한 경제적 보조와 복지시설의 설립을 통해 노인들을 보호하려는 공공정책과 함께 무엇보다 노인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종교사회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노인들이 학대를 받으면서까지 애써 지키려는 자존의식과 이를 은폐하여 자녀 및 자손들의 비행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눈물겨운 노력은 가족 기능의 회복을 통해서만 보상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에는 종교의 역할이 가장 기대된다. 무엇보다 종교 활동이 노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가 보여준다. 종교활동의 참여는 자아존중감을 고양하고, 노년기의 정서적 불안상태인 우

52) 여성가족부,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2016. 12, 연구보고 2016-41), vi.

53) 함인희, 「가족사회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112.

울과 고독감을 낮추어 삶에 대한 만족을 가져옴으로써 결국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종교활동 중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영성적 측면에서도 여가시간을 종교생활로 충족시키는 것이 정신적 웰빙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웰다잉으로 확장되는 것이어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내세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⁵⁴⁾ 이와 달리 노인의 종교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⁵⁵⁾ 대부분의 조사에서는 노인의 삶에 미치는 종교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연구 중에는 노인의 죽음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영적 불안에 관한 것도 있으나 대체로 여기서 거론된 종교는 지금, 여기 이 지상의 삶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교활동의 참여를 통해 노인들이 위안을 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해도 이것이 곧 그들에 대한 학대나 폭력이 극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노인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변하지 않는 한 노인학대는 지속될 것이어서, 노인학대 역시 가정폭력의 일환으로 가족 구성원 전체의 협력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종교는 바로 노인 개개인에 대한 역할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전체 공동체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으로, 종교 신자라면 가족 모두가 동일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대로 종교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일상에서 함께 묵상하고, 견고, 웃고, 대화하며, 봉사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면 노인학대의 문제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54) 김수정, 「노인의 종교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사회적 지지 및 실존적 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33 (2006), 29-50; 손용진, 「노인기의 종교변화에 따른 생활 만족도」, 『노인복지연구』36 (2007), 181-200; 유승무, 「종교와 노인의 여가」, 『불교학연구』19 (2008), 7-30; 문태연·변상해, 「노인의 종교활동 참여가 자기존중감 및 죽음불안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7/3 (2012), 115-120; 강성봉·조성숙, 「노인의 종교활동과 신앙태도가 우울 및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3/10 (2013), 325-346; 조윤주, 「여성 노인의 종교와 생생감 및 심리적 안녕감과 의 관계」, 『생애학회지』6/1 (2016), 73-84.

55) 남기민·박현주, 「노인의 종교활동과 사회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49 (2010), 405-427.

V. 결론

본고는 현대 사회문제 중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고 그 해결에서 종교, 특히 생활종교가 수행하는 역할을 찾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현대사회에서 대인관계의 질이 개인 웰빙의 핵심 결정 요인이거나, 이것은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족 간 학대나 폭력에 의한 사회문제의 해결은 가정생활의 질과 가정의 정서와 웰빙의 척도에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다.⁵⁶⁾

특히 노인의 빈곤, 건강, 일자리 확대나 소외문제 등 사회문제로서 노인문제는 개인 및 가족 차원에서 해결이 힘든 것이 많아서 지역사회 및 국가 차원의 개입계획 수립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⁵⁷⁾ 그간 노인학대는 주로 의료적 측면에서 다루어졌는데, 실제로 학대받은 노인들을 처음 의료 현장에서 접하는 사람들은 의사와 간호사로, 특히 의사는 노인학대를 신고하거나 치료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노인들 역시 의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자립의 의지를 키우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노쇠한 또는 학대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지나친 요구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종교가 그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노인들에게 사후의 구원에 대한 종교적 가르침만큼 중요한 것은 적어도 그들이 얼마 남지 않은 현세의 삶에서 가족의 학대로부터 벗어나 돌봄을 받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최근 대부분의 종교기관들이 신자들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들의 일상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가족 간 폭력이 개재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은 곧장 가족의 해체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매맞는 아내, 학대 받는 아동이나 노인 중 어느 하나라도 개인이 아닌 가족 공동체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통한

56) Andrew M. H. Siu & Daniel T. L. Shek, "Social Problem Solving as a Predictor of Well-being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5/3 (2010), 393, 402-404.

57) 최해경, 『노인복지론』(서울: 학지사, 2016), 121.

가정폭력의 해결은 그것이 상담이든, 자원봉사 활동이든, 종교의례의 참여든 피해자 한 개인이 아닌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함께 하는’ 종교적 실천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반드시 의례, 제도와 같은 종교적 특성들이 없는 스포츠 문화일 수도 있고, 사회지도자의 메시지나 전통적인 종교 기념 행사에 담긴 어떤 현상일 수도 있다.⁵⁸⁾ 종교지도자들의 행적도 평범한 인간이 실천하기 어려운 탈현세적 수행 같은 것이 아니라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명상, 걷기, 웃음과 같은 쉽고 일상적인 것들이다. 이것은 생활종교가 생활 속에서 실천이 가능한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활종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탐색과 보완이 요구되고, 그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도 앞으로 새롭게 개척되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건강한 삶이 바로 지역사회와 국가의 평화와 행복에 직결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 생활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주제어: 사회문제, 생활종교, 가정폭력, 노인학대, 아동학대

원고접수일: 2018년 4월 26일

심사완료일: 2018년 5월 31일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6일

58) Richard D. Hecht and Vincent F. Biondo III, "General Introduction," Richard D. Hecht and Vincent F. Biondo III (eds.), *Religion and Culture: Contemporary Practices and Perspectiv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xiv-xv.

참고문헌

- 강성봉·조성숙. 「노인의 종교활동과 신앙태도가 우울 및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3/10 (2013), 325-346.
- 고영복 편. 『사회학사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2000.
- 김수정. 「노인의 종교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사회적 지지 및 실존적 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33 (2006), 29-50.
- 김원천·박현식. 「노인학대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중복학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38 (2011), 141-160.
- 김태수. 「한국의 가족문화: 가장장적 구조에서 가정폭력과 목회상담자의 역할」. 『복음과 상담』5 (2005), 161-178.
- 김혜경 외.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 서울: 다산출판사, 2014.
- 김희선. 「힘의 악용으로서의 가정폭력과 종교: 기독교신앙의 역할」. 『목회와 상담』27 (2016), 71-98.
- 남기민·박현주. 「노인의 종교활동과 사회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49 (2010), 405-427.
- 문태언·변상해. 「노인의 종교활동 참여가 자기존중감 및 죽음불안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7/3 (2012), 115-120.
-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justice.gov/ovw/domestic-violence> (2018. 3. 15 접속).
- 바커, 로버트 L. 『사회사업사전』. 중앙사회복지연구회 옮김. 서울: 이론과 실천, 199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6. 15.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 11. 23. “빅데이터와 통계로 보는 우리사회의 아동학대 인식.”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17. 12. 29. “2017 통계로 보는 보건복지.”
- 손용진. 「노인기의 종교변화에 따른 생활 만족도」. 『노인복지연구』36 (2007),

181-200.

- 여성가족부.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2016. 12, 연구보고 2016-41).
- 유승무. 「종교와 노인의 여가」. 『불교학연구』19 (2008), 7-30.
- 이철우. 『현대사회문제: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17.
- 이현주. 「학대의 세대전이를 통해 본 노인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상담자료 분석 활용」. 『사회과학연구』29/3 (2013), 409-431.
- 임병갑. 「〈과학문화 발전 프로그램〉을 위한 철학적 기초로서의 비판적 구성주의」. 『과학기술학연구』1/2 (2001), 439-467.
- 장혜민. 『김수환 추기경 평전(eBook)』. 서울: 산화화진주, 2010.
- 전명수. 「생활종교와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종교시설 내 납골당 설치를 중심으로」. 『종교연구』77/3 (2017), 39-66.
- 정학섭. 「친밀성의 위기와 순수지속의 사상적 성찰」. 『사회사상과 문화』18/3 (2015), 1-31.
- 정헌주 외. 『사회문제의 이해』(제2판). 서울: 대왕사, 2014.
- 조윤주. 「여성 노인의 종교와 생성감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생애학회지』6/1 (2016), 73-84.
- 틱낫한. 『틱낫한의 평화로움』. 류시화 옮김. 서울: 열림원, 2002.
- 함인희. 「가족사회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15/1 (2014), 87-128.
- American Bar Association. “Domestic Violence Changes Everything.” *Family Advocate* 28/1 (2005), 16-17.
- Anderson, Kristin L. “Conflict, Power, and Violence i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3 (2010), 726-727.
- Appel, Anne E. and George W. Holden. “The Co-Occurrence of Spouse and Physical Child Abuse: A Review and Appraisa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4 (1998), 578-599.
- Appel, Jonathan K. and Dohee Kim-Appel. “Child Maltreatment and Domestic Violence: Human Services Issues.” *Journal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29/2 (2006), 228-244.
- Attewell, Paul, Juan Battle, Belkis Suazo-Garcia. “Computers and Young

- Children: Social Benefit or Social Problem?" *Social Forces* 82/1 (2003), 277-296.
- Bufacchi, Vittorio. "Two Concepts of Violence." *Political Studies Review* 3/2 (2005), 193-204.
- Chima, Felix O. "Familial, Institutional, and Societal Sources of Elder Abuse: Perspective on Empowerment." *International Review of Modern Sociology* 28/1 (1998), 103-116.
- Cole, Juan. "Islamophobia as a Social Problem: 2006 Presidential Address." *Middle East Studies Association Bulletin* 41/1 (2007), 3-7.
- Curtiss, John S. "Religion as a Soviet Social Problem." *Social Problems* 7/4 (1960), 328-339.
- Davies, Martin (ed.). *The 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al Work*. Oxford: Blackwell, 2000.
- Ford, Thomas R. and Thomas J. Hoban. "Bridging The Gap Between Social Problem Analysis and Social Problem Solution."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4 (1987), 63-70.
- Hall, David D. "Introduction." David D. Hall (ed.). *Lived Religion in America: Toward a History of Practic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 Hart, Hornell. "What is a Social Problem?"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29/3 (1923), 345-352.
- Hearn, Jeff. "The sociological significance of domestic violence: Tensions, paradoxes and implications." *Current Sociology* 61/2 (2012), 152-170.
- Hecht, Richard D. and Vincent F. Biondo III. "General Introduction." Richard D. Hecht and Vincent F. Biondo III (eds.). *Religion*

- and Culture: Contemporary Practices and Perspectiv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 Heiner, Robert. *Social Problems: An Introduction to Critical Constructionism.* 4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Kupari, Helena. *Lifelong Religion as Habitus: Religious Practice among Displaced Karelian Orthodox Women in Finland.* Boston: Brill, 2016.
- Lee, Ellie. "Constructing abortion as a social problem: 'Sex selection' and the British abortion debate." *Feminism and Psychology* 27/1 (2017), 15-33.
- Marar, Ziyad. *Intimacy: Understanding the subtle power of human connection* [eBook]. New York: Routledge, 2014.
- McGuire, Meredith B. *Lived Religion: Faith and Practice in Everyday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Nyhagen, Line. "The lived religion approach in the sociology of religion and its implications for secular feminist analyses of religion." *Social Compass* 64/4 (2017), 495-511.
- Orsi, Robert. "Everyday Miracles: The Study of Lived Religion." David D. Hall (ed.). *Lived Religion in America: Toward a History of Practic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 Ray, Larry. *Violence and Society.* London: Sage Publications, 2011.
- Siu, Andrew M. H. and Daniel T. L. Shek. "Social Problem Solving as a Predictor of Well-being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5/3 (2010), 393-406.
- Stanko, E. A. "violence." E. McLaughlin and J. Muncie (eds.). *The*

Sage Dictionary of Crimin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2001.

Sullivan, Thomas J. *Introduction to Social Problems*. 10th ed. Boston: Pearson, 2016.

Troyer, Ronald J. and Gerald E. Markle. "Coffee Drinking: An Emerging Social Problem?" *Social Problems* 31/4 (1984), 403-416.

Abstract

The Role of the Lived Religion for Modern Social Problem Solving

: Focusing on Domestic Violence

Chun, Myung-Soo (Korea University)

This article was attempt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the role of religion, especially the lived religion for problem solving focusing on domestic violence as one of social problems. Although domestic violence takes place within families, it is sure to be ‘social’ problem because of its social origin, negative influence to society and social effort for solving it. The first characteristic of domestic violence including child, elder and spousal abuses is that violence occurs in contexts of intimate relations, albeit usually unequal intimacy, which causes violence everywhere in society on the pretext of intimate relation. The second characteristic of domestic violence is poly-victimization connecting child, partner, elder and sibling abuses as well as physical, sexual and emotional abuses.

These characteristics imply that the ultimate solving of domestic violence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standpoint of family community; and it must be religion to do its best for taking care of the whole families together. In this regard the necessity of the lived religion

is raised, since religion focusing on high level of doctrine and future world through soul salvation is not enough to conduct the role. The key of the lived religion is ‘now’ and ‘here’, meaning religion in daily life or in lived experience. Religion concerns not only individual matters, but it enables the collective approach toward whole families, especially exerting the positive influence on the life of the elders. If whole families including abuser and victim can pay attention to the lived religion which is easy to put in practice through participating religious service, praying, mediating, taking a walk, laughing, conversing and doing volunteer work ‘altogether’, it may help decrease domestic violence.

Key words: social problem, lived religion, domestic violence, elder abuse, child abuse